2008. 9. 26 (금) 11:00

제274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 의 문

충청북도의회

"국회의정연수원"의 공정한 입지선정을 촉구하는

건 의 문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박계동 국회사무총장님!

2008베이징 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겪었던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되지 못했던 국론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시간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정상적인 가동을 시작한 것 또한 매우 반갑고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7대 국회 때 강원도 고성으로의 국회의정연수원의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은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이 교육받는 장소이기에 전국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과 국회연수의 특성상 국가안보적 측면 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것 또한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50만 충북도민은 국회연수원 입지선정은 18대 국회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국회토론회 등 국민의 공론수렴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의 되어야만 추후라도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제천시는 국토의 중심지로써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중앙선과 충북선, 태백선 등 3개 철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관통할 뿐만 아니라 국도의 연계성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10년 국제한방엑스포를 제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과 국회연수원 건립을 연계한다면 국가발전의 사각지대에서 낙후와 저발전의 고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 등 중부내륙지역 공동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우리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연수원의 입지는 보편성과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연수원의 건립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심사를 통하여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우리 150만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8년 9월 26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